

#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 2. 4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2.26)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도쿄전력은 4차 방류를 위해, 오염수를 K4-E 탱크군에서 약 4,500톤, K3-A 탱크군에서 약 3,300톤을 K4-B 탱크군으로 이송했으며,

○ 작년 12월 1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균질화 작업을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해 핵종별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4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또한, 측정·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에서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했으므로, 이번주 수요일(2.28)에 4차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4차 방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상황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 전문가 현지 파견, IAEA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다각도에서 점검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2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체\*와 유통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9건과 6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5건, 가다랑어 3건, 황다랑어 2건, 민어 1건, 송어 1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2월 2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입항한 1척,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8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2월 2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영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월 2주~3주(2.5~2.1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 134는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 $^{134}\text{Cs}$ ) <0.073Bq/L, ( $^{137}\text{Cs}$ ) <0.077Bq/L, ( $^3\text{H}$ ) <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2.2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